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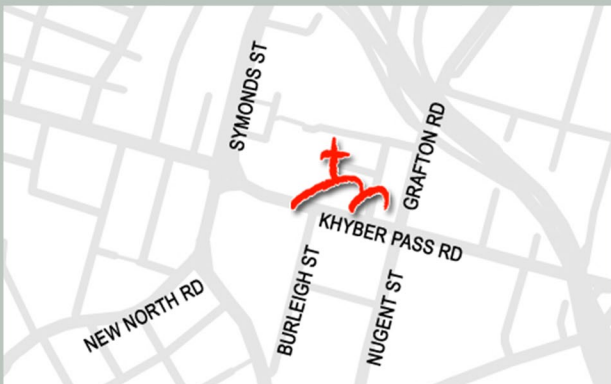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2부 예배 후에 9월 정기 당회가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3시 15분).

- '신앙의 토대' 주일 반 성경공부가 오늘부터 청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신청한 성도들과 공부하기를 원하는 성도는 4시 10분까지).
- 다음 주일은 각 선교회 월례회 주일입니다. 임원들은 한 해를 점검하는 의미 있는 모임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 정기적인 기도회와 공동체, 선교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삶의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기 바랍니다.
- 교회 홈페이지 내용이 새롭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데스크탑, 노트북 컴퓨터는 물론 iPad와 핸드폰으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주시고 혹 홈페이지에 제작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문의 바랍니다 (문의/박덕철 장로).
- 이태한 목사는 교단 총회 임원회를 잘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기도해준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0월 교회 사역 일지]

- 11일(금): 저녁 기도회
- 23일(수): 3 여선교회 주관 예배
- 27일(주일): 감사주일

INFO



[예배시간안내]

주일 1부예배	주일	11:20 am
주일 2부예배	주일	1:00 pm
청년예배	주일	3:15 pm
수요예배	수	7:30 pm
새벽기도	금	5:30 am
유아부	주일	1:00 pm
청소년부	주일	1:00 pm

[섬기는사람들]

담임목사	이태한
부목사	이성철
부목사	이성훈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369-5077 (Mb) 021-968-388  
LTH-07@calvary.org.nz



해/외/한/인/장/로/교/회  
갈보리교회  
교회창립 1999 / 07 / 18

2019/09/29  
21권 39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14

<b>주일예배</b>	1부 오전 11시 20분	2부 오후 1시	인도: 이태한 목사
찬양	-----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시편 100: 1-3	-----	인도자
■ 찬송	36장	-----	다같이
■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259장	-----	다같이
대표기도	-----	-----	정덕수 장로
성경봉독	창세기 1:1	-----	인도자
찬양대찬양	주의 곁에 있을 때	-----	나무십자가 찬양단
설교	하나님이 태초에	-----	이태한 목사
성찬식	-----	-----	집례자
찬송	143장	-----	다같이
헌금기도	-----	-----	인도자
교회소식	-----	-----	인도자
■ 응답송	445장	-----	다같이
■ 축도	-----	-----	이태한 목사

■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b>수요예배</b>	오후 7시 30분	<b>청년예배</b>	오후 3시 15분
기도	정진택 집사	금주기도	박민해 자매
성경봉독	누가복음 4:16-23	다음주일	오혜신 자매
설교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 매주 금요일 오후 6시에 청년부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이태한 목사		
찬송	341장		
주기도	다같이		

[10월 기도 순서]  
10월 6일 (주일) / 정관영 장로  
10월 2일 (수) / 정혜숙 권사  
10월 13일 (주일) / 김병진 목사  
10월 16일 (수) / 황경임 집사

[10월 예배 봉사자]  
예배 안내 / 김병진, 김명춘  
새신자 안내 /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 민광호  
주방 봉사 /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 A

이번 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김현수 선교사 소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멀리 남아공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8월 한 달 동안 있었던 사역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아동부 전통 무용단원들과 어린이들에게 양말과 털 모자를 선물하며 격려했으며 유스 그룹은 단기선교를 온 형제가 유스 시포에 게 자신의 재킷을 벗어 주었고 가져온 중고 옷들을 골라 입혔더니 시골스럽던 아이들이 살아납니다. 요즘 실족했던 유스들이 주일예배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또 8월 여성의 달을 맞아 성도들과 지역 여성들을 초청하여 그룹으로 성경공부를 하고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에서의 여성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교육 및 훈련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스티브 목사가 한 달에 한 번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 데 이번 바자회에 필요한 것을 많이 주셨고 윤광식 목사님 내외분께서 방문하여 선교사를 격려해 주시며 떡과 함께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는지 선교사는 물론 온 성도들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목회자 멘토링 세미나가 김영봉 목사님 (사림의 기도 저자, 미국 워싱턴 전 한인 감리교회)께서 오셔서 2박 3일 케이프타운 선교사들을 섬겨주셨고 북 콘서트를 통하여 저자와의 대화, 사인회를 하였습니다. 김유진 목사님 (미국 백인 감리교회)께서도 현지 선교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 주셔서 많은 선교사들이 깨달음과 배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8월도 참으로 분주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교회는 사역자 아피와 유스 난다의 불순종으로 어수선했으나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이에 대한 치리가 내려졌는데 교회를 방해하는 주변 세력들이 이들을 이용하여 선동했지만 이제 모든 것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여전히 산고의 수고가 따릅니다. 뒤에서 보내 주시는 기도 덕분에 선교사가 자리를 지키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름 없이 값없이 보내 주시는 기도와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혼 구원을 위해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8월 28일

김현태 맹연수 선교사

기도 제목

1. 현지 교회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잘 세워지도록.
2. 선교지를 방문하는 단기 선교팀이 현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도록.

### 국민감정과 선교

한일 관계가 해결의 기미는커녕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한 주간 일본에 있으면서 같이 회의를 하는 일본 노회 목사와 우리 일행 외에는 한국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물론 회의를 하느라 밖을 나갈 일이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음식점을 찾아야 했고 우리 일행 중 거의 대부분이 일본이 초행이라는 말에 일본 노회 목사들이 동경에서 가장 변화가인 '긴자' 거리는 꼭 나가보아야 한다면서 사양하는 우리를 끌다시피 하는 바람에 딱 한 번 나가보았습니다. 긴자(銀座, Ginza)라는 지명은 옛날 에도(江戸) 시대에 은화(銀貨) 주조소가 있었던 것에서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노회 목사들의 말에 의하면 한국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긴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정말 신기할 정도로 단 한 사람의 한국인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한국인의 응집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노회 목사 한 분이 이런 걱정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현재 한국 국민의 반일 정서와 악화된 여론에 눈치를 보느라 선교를 온다고 했다가 취소하는 교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리스도인까지 맞장구쳐서 일본 선교를 중단한다면 그게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과거를 문제 삼는 (일본의 과거가 올바르다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감정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암묵적으로 동조하여 계획을 취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답지 못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선교를 해야 하고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적대시하여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알게 됩니다. 물론 한국 국민의 일본에 대한 감정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에게 갖는 감정은 그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가 어떤 사람일지라도 차별이나 구별이 없이 전해지고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간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적대감, 시대적 상황을 뛰어넘는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랑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으나 의도적으로 사랑을 인색하게 베풀거나 시류에 따라 제한하고 차별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흘러 보내는, 일본을 향한 선교는 계속되기를 소망하면서 한 주간 일본에서 보낸 소회를 나눕니다.

이태한 목사

1.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구원의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도록.
2. 교역자와 향존 직분자들이 기도로 능력 받고 성령 충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도록.
3. 육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에게 회복이, 세상보다 영적인 삶에 우선순위를 두는 성도들이 되도록.

창세기 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